

第9輯

# 禮山文化院報



特輯 湖西銀行

烏山縣·任存城·今勿縣

## 새 벽 안 개

시

사진 글. 권 태 일

내 오롯이  
안개로 남고 싶음은  
아직  
어둠이 마르지 않은 까닭입니다.

산허리 감아들면  
산들바람 마시면  
잠힐듯 물러서는 안개  
양팔로도 닿지않는  
나는 슬래입니다.

불멸의 이끼서런  
초당의 새벽은  
글 읽는 소리  
작설차 향기로 깨어나는데  
글 읽는 이도  
차림이 는 이도  
예전의 그들 아니지만  
안개는 마냥  
초당 나그네입니다.



강쪽을 망석삼아  
부서진밤 낚아온  
태공네의 등을떨며  
새벽안개 걸힐때  
거뭇배에 물러들며  
밤이슬 떨구는 온빛 지느러미

내 오롯이  
안개로 남고 싶음은  
아직  
아침이 머물고 있는 까닭입니다.

## 秋史記念館 올해 着工



우리 고장의 先賢이 이룩 해 놓았던 文鄉 그것도 刻劃한 墨鄉을 다시 復興하겠다고 1986년부터 櫛風沐雨 하면서 움직여 왔다.

이에 關係 여러분과 뜻있는 人士들의 힘을 얻고 입어 丙寅의해 秋史先生 誕辰200周年에 韓國文藝振興院으로 부터 策定을 받았다. 여기 이미 着工을 했어야 했는데 地方自體資金인 郡財政事情으로 起工을 못하였다.

設計는 完成되었다고 하나 어려운點도 많고 슬기로운 理解 또한 아쉬움도 있었다.

새해는 起工될것으로 期待되며 이 設計대로 秋史記念館이 竣工되는 날 內浦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 고장의 文藝復興運動에 加鞭이 되어 政府가 期待하고 있는 地方文化의 活性이 이루어질 것으로 또한 期待가 되어 고장의 文化人家族은 勿論 郡民도 喜悅에 차 있다.

## 驚異의 繁昌을 가져왔던 湖西銀行

- 郷土史를 照明해줄 建物 保存되어야 한다 -

鄙農村 小都邑에 設立된 社會的 背景

禮山郷土史研究會 編



創立 頭取  
俞 鎮 相

湖西銀行本店 建物이 헐릴것이라고 한다. 國恥를 前後해서 民族資本에 依해서 設立된 銀行으로서 經濟界 金融界를 君臨 하고 民族의 低力を 誇示해 주었던 史蹟遺物이 헐릴危機에 處해있다. 忠淸銀行이 朝興銀行으로 부터 引受받아 禮山支店이 營業하고 있는 建物로 老朽가 되어 使用價値性을 잃어서 現代式으로 新築하기 爲한것이라 한다.

이建物を 우리가 日本의 植民政治를 받으면서도 民族의 經濟獨立이 곧 나라獨立을 갖어오는 것이라고 覺醒한 先人들에 依해서 純民族資本 이것도 禮山地方에 居住하는 人士들만의 資本으로 湖西銀行이 設立되어 當時로서는 現代式으로 建築된 것이다.

郷土史的 健物 :

이 湖西銀行이 鄙村 內浦의 小都邑인 禮山에 本店을 둔 銀行으로서 많은 支店까지 지니면서 驚異롭게 繁昌했던 銀行本店 建物로 唯一하게 남아있는 遺蹟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建물이 지니고있는 우리民族史的 特히 禮山의 郷土史的 遺蹟이요 有形文化財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金融 및 銀行史의 一部를 밝혀주기도 한다.

이에 1910年(國恥) 前後한 우리나라가 處해있던 國情과 內浦를 中心으로한 忠淸南道의 金融經濟 商業的 農業 農家所得 등을 짊어 봄으로서 이建물이 지니고 있는 歷史性이 밝혀질 것이다.

國恥前後한國情 :

朝鮮王朝510年 동안의 鎖國主義도 外勢의 壓力에 밀려 門戶를 開放한 韓末激動期에 日本을 비롯한 列強들과 通商條約을 締結하였으나 國力과 地理的 條件으로 自力으로 近代化를 추진할만한 條件이 成熟되어 있지 못한채 周邊強大國들의 角逐場이 되어 歪曲된 近代化課程을 밝기 시작되었다.

1876年 2月 江華島條約을 締結하면서 列強中에도 그優位에 올라선 日本은 1870年 6月에 日本의 第一銀行支店이 釜山에 開設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最初의 銀行制度가 이땅에 導入 되었다. 1910年 8月 22日 國恥를 當하고 壓迫과 질곡 상태속에서 經濟獨立이란 새마람으로 民族企業育成이라는 經濟의 새覺醒을 가지



게 되었다.

經濟獨立의意志 : 이와같은 굳은 意志와 信念은 國產장려를 위시하여 消費節約 檢소한生活 氣風을 추진한 物產獎勵會를 組織하여 活動을 推進하였다. 그래서 民族將來를 점 칠수 있는 길은 民族資本의 形成과 企業을 成熟시켜 가는길이 라고 하였다.

이러한 躍動期인 國恥의 해로부터 3年後인 1913年 5月2日 內浦地域 가운데서 農村의 鄙村인 禮山에 湖西銀行이 그것도 이 地域의 地主들에 依해서 純粹한 民族資本으로 設立이 되었다. 또한 長項線鐵道가 敷設(1922年 6月)되기 近 10年前에 農村小邑에 例가없는 僻은時期에 設立된 理由는 前述한 近代化過程으로 보아야 하겠다.

禮山中心으로한 : 禮山이 當時 道廳所在地였던 公州보다 經濟의 盛況을 이루고 忠淸道西海地域의 中心役割을 하게된 背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9年에 刊行된 「韓國 各 府郡市場狀況調查表」에 忠淸南道 各 地方市場의 年間取引(去來)額을 보면

公 州	260,600 圓	連 山	48,517 圓
瑞 山	188,000 圓	唐 津	70,400 圓
韓 山	237,600 圓	牙 山	54,000 圓
沔 川	136,400 圓	海 美	17,600 圓
禮 山	310,000 圓	全 義	56,600 圓
定 山	14,960 圓	木 川	21,480 圓
泰 安	19,364 圓	鎭 岑	14,000 圓
舒 川	60,000 圓	鴻 山	72,000 圓
洪 州	75,600 圓	扶 餘	133,200 圓
大 興	13,600 圓	新 昌	25,300 圓
德 山	15,150 圓	結 城	146,160 圓
林 川	36,000 圓	青 陽	15,840 圓
溫 陽	36,000 圓	保 寧	157,466 圓
藍 浦	110,654 圓	覆 山	73,200 圓
		庇 仁	82,800 圓

으로 되어 있다.

이 表로 보아 公州보다도 禮山이 많은 數字로 示顯되고 있다.

貨幣流通은 公州 : 公州는 우리나라의 傳統都市이며 忠淸南道의 首都로서 地方行보다 優位에선 政의 中心일뿐 더러 地方行政의 基本單位가 되는 面의數에 있 禮 山

어서도 21面에 人口에 있어 100,578名을 가리키고 있는 反面 禮山은 10面에 19,895名에 불과 하였다.

이와같이 狹少한 面積에 小數 밖에 안되는 禮山이 年間取引額이 公州의 260,600圓에 對해 어찌서 310,000圓이란 큰差를 가져왔나? 변두리의 農村小邑인 禮山이 忠南의 首都 公州에 比해서 巨大한 年間取引額을 가져온 理由가 그 무엇인가 하는것을 解明하는것이 또한 禮山에 湖西銀行을 設立하게된 社會的 背景을 說明하게 된다.

그 무엇보다도 禮山에 湖西銀行이란 近代의 金融機關이 設立되는것은 이地域의 貨幣經濟의 進展度에 있어 그첫째로 先進性을 示顯되지 않고서는 안된다.

禮山이 邊鄙農村으로서 他地方보다 먼저 貨幣經濟의 先進이란 惠澤을 받게된 理由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農業收入은 全 : 1925年 9月에 朝鮮總督府內務局 社會課에서 發表된 「農家 國에서 忠南이 經濟에 關한 調査」에서 밝혀진 忠淸南道の 農業收入狀況을 보 기로 한다.

地主層 : 戶當 全國平均收入額	1,534 圓
" 忠南平均收入額	3,143 圓
自作農層 : 戶當 全國平均收入額	646 圓
" 忠南平均收入額	740 圓
自作兼 層 : 戶當 全國平均收入額	476 圓
小作農          " 忠南平均收入額	645 圓

純小作農層 :

戶當 全國平均收入額	403 圓
" 忠南平均收入額	555 圓

이統計가 農家收入에 있어 全國 平均에 對比해서 忠淸南道の 農家 收入이 훨씬 優越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忠淸南道の 農家收入이 높은것은 穀物生産에 依한 收入뿐 아니라 商業的 農産物의 生産에 收入을 더 依支하였다는 것이 다.



設立免許狀

商業的 農業에 :  
先進



1922年以後  
頭取 金鏡愛

商業的 農産物은 棉花, 苧麻, 葉煙草等 三大作物을 친다. 예로부터 우리의 衣料로 棉花와 苧麻로 織造된 “무명”과 麻布 그리고 “모시”가 傳統的인 衣類로 삼아왔다. 이 棉花와 苧麻의 生産이 禮山地方의 商人들이 發揮한 活動에 依해서 隆盛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日本과 英國製紡織 棉絲의 大量輸入을 強力히 對抗하면서 在來의 棉花生産을 隆盛 시킨 것은 忠淸南道 地方 商人들에 依한 活動相으로서 注目 할 만 일이다」라고 「韓國土地農業調查報告」에서 指摘된 것으로 說明된다. 特히 이報告에서 「韓國人的 夏季에 있어 常用衣料인 苧麻와 苧麻織造業은 忠淸南道の 獨點産業으로 알려져 있다」고 또한 指摘하고 있다. 葉煙草의 生産에 있어서 忠淸南道는 重要한 地位을 點하고 있다. 忠南에서도 禮山을 비롯해서 定山, 靑陽, 溫陽, 全義, 天安等地方 葉煙草 生産地로 指摘되고 있다.

杞柳工藝 :

忠淸南道 農民들이 商業作物의 栽培와 加工에 있어 얼마나 進取의 이었나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例를 들어보면 杞柳工業을 들 수 있다.

野生杞柳를 가지고 바꾸니 상자(行李)키, 등을 製作하는 것으로서 1909年 以來 日本 農業技師에 依해서 改良된 杞柳苗木을 들여와 獎勵한바 있다.

이에 忠淸南道 農民들은 傳統的인 職業觀念에서 벗어나서 杞柳의 栽培와 加工業에 積極的인 姿勢로 임했다. 1915年의 道別 杞柳栽培面積을 보면 京畿道가 8町步 忠淸北道가 3町步 全羅南北道가 各 1町步, 慶尙南道가 3町步인데 비해 忠淸南道는 18町步라는 數字를 보여주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忠淸南道가 商業的 農業의 發展으로 農業의 先進地域이면서 商業的 農産 加工業의 展開로 增大된 副業과 餘業의 收入이 名階層에 걸쳐 農家收入을 增加에 왔다.

商業活動의 背景 : 이제는 禮山이 忠淸南道에서 商業活動의 中心地가 된 背景을 들어보아야 하겠다.

- 禮山은 仁川과 京城에 沿하는 海路의 出發點인 仙掌이란 要港을 옆에 끼고있는 農産物의 一大集散地였던 것이다. 鐵道가 敷設되기 前에 主要農産地에서 生産된 米穀은 禮山에 모았다가 仙掌港을 거쳐서 仁川과 京城으로 運搬되는 米穀輸送 및 去來의 中繼地點이었던 것이다.

○ 商業과 産業의 要衝地로 造成된것은 商人의 都散賣 巨商들이 集結되었다.

前記한바 棉花와 芋麻의 栽培을 獎勵하고 外國輸入에 저항할 정도의 水準의 商人들이 모여 있었다.

定着된 巨南群 : 여기 代表的인 商人을 昭和二年一月에 刊行된 朝鮮人會社 大商店 辭典(全)(尹楨完氏 藏)에 依해서 들어보기로 한다.



創立取締役 監査  
이머 忠南商業 佛  
社長 崔 圭 錫

尹昌奎商店 : 改良農具及 土木建築用材 專門으로 1913年 設立되  
었고 設立者는 商界에 投身 40餘年에 斯業에 知識과  
經驗이 豊富한 人士

黃鶴柱商店 : 주단布木 諸織物貿易 新舊雜貨 其他鮮鞋名種을 取扱  
1916年 一月에 設立하였으며 設立者는 自幼時로 商  
業에 從事하여 實際의 知識과 經驗이 자못 豊富한 人士

鎮淑洋服店 : 各種洋服製造專門 其他附屬品一式 各學生帽子 製造  
都賣로 1918年에 資本金 一萬圓으로 設立되었고  
設立者 林鎮淑氏는 商界에 投身 20餘年에 달하는바  
同店은 距今 9年前에 開始되었고 하며 最新式流行洋  
服을 오로지 技術에 置重.

大昌商店 : 주단布木 諸織物貿易販賣 各種紙物都散賣로 1919  
年 11月에 白良鳳氏가 設立하여 敏滑한 수완으로 隆  
昌케 했다.

禮山商會 : 주단布木 各種紙物 新舊雜貨 各種帽子 肥料 其他 官  
公署用途 專門으로 1922年 11月에 成天永氏가 1  
萬五仟圓의 資本金으로 設立하여 商界 "에누리" 弊  
習을 打破하기 爲하여 正札 信用本位로 運營하면서  
育英事業도 兼

三成商會 : 海陸物產貿易 및 委託販賣業으로 1925年에 康俊鶴  
李根植氏가 設立하고 尹聖九氏가 主務를 맡고 信用  
本位로 運營. 康氏는 商界에 投身한지 30有年에 知  
識과 經驗이 豊富한 人士.

中國人 大商들 : 또한 禮山이 仁川과 群山에 輸送될 農産物의 集散地가 된것은  
의 據點

화교들의 商業活動에 一大據點이 되는 要因도 되었다.  
이것은 淸一戰淨이 勃發되자 仁川이 日本軍의 兵站本部가 서게되  
었다. 이에 仁川在留 화교에 對한 迫害가 심해지자 仁川을 避하  
는 화교들이 商業活動의 據點인 禮山에 移居하였다.

禮山이 韓國人뿐 아니라 화교商人과 日本人商人이 活動據點 이  
었다는 것은 "忠南産業誌"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禮山은 本道에서 沿岸에 이르는 交通上의 最要地로서 不過 4 里에 牙山灣의 要港 仙掌을 끼고있는 禮山이 京城, 仁川方面과의 物資仲藏市場으로서 輿地에는 公州와 靑陽이 있는 商業上의 中心地로 韓國人(鮮人)의 巨商, 支那人의 大商賈의 居住者가 많은데 이곳에 在留支那人은 日清戰役의 도서者가 많이 殘留하여 今 日에 이르렀던 것으로 支那人의 商業術은 健忍해서 年(인), 달(月)에 따라 그勢力이 伸張하여 禮山居住 支那人中에는 數 10 萬圓의 資産을 가지고 있는者 적지않고 또한 日本人(內地人) 湖西銀行에 눈은 : 鋪道 禮山에서는 根據가 깊고 健實하게 發達하고 있다.」

地方地主들 禮山이 이와같은 社會經濟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商業的 農業의 發展과 米穀을 中心으로한 農産物의 商去來는 貨幣經濟에 關係해서 禮山地方의 地主들에 눈을 뜨게한 動機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래서 鄒農村 小邑인 禮山에 湖西銀行이 設立된것이다.

驚異的發展과 : 이湖西銀行이 驚異하게 發展되었다는 것은 餘信, 受信의 額數가 姉妹會社 設立 상상外일뿐만 아니라 崔圭錫, 俞鎮泰, 鄭斗和의 發起로 穀類 商業農産物의 貿易과 都賣委託 販賣業을 主로하는 忠南商業株式會社를 姉妹會社로 1918 年에 設立하여 社長에 崔圭錫을 互選하였다. 그리고 1926 年에는 成樂奎 成樂憲兄弟와 金鎮燮의 發起로 蠶糸業으로 近大的 製絲工場을 갖춘 忠南製絲株式會社를 設立하고 成樂奎가 社長에 就任했다.

鄒農村에 設立된 銀行으로 京城에 設立된 銀行과 어깨를 같이하였던 湖西銀行의 그設立과 運營 그리고 繫列會社를 主導해온 俞鎮相과 俞鎮泰兄弟 그리고 成樂奎와 成樂憲兄弟와 崔圭錫은 모두 禮山에 居住했던 地主들이다.

湖西銀行本店 : 이와같이 民族銀行史로 보나 鄒土史에 한章을 이루는 遺蹟을 建物は 保存되어야 지니고 있는 有形史蹟인 지금도 湖西銀行 徽章이 그대로 붙어있 한다. 는 建物は 꼭 保存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湖西銀行의 沿革과 年譜를 朝興銀行 70 年史에서 拔萃傳載한다.



創立當時의 本店

禮山郡 郡內面 楊岱里  
22 統 5 戶 現 中國人  
所有 住宅으로 改造.

## 沿 革

禮山은 忠淸南道의 中央에 位置하여, 主要都市와의 交通이 便利하며, 忠南地方의 重要產物인 米穀, 苧布等의 集散地로서 商來來가 殷盛하였다.

然이나 金融機關이 없는 關係로, 商來來는 現金取扱으로만하게 되어, 其不便이 不少하므로, 銀行의 必要性을 認知한 其他地方의 有力者인 俞鎮相, 成樂奎, 俞鎮泰, 李基升, 崔圭錫 諸氏와 서울의 金鎮燮, 咸台永氏等은 資本金 參拾萬圓의 株式會社 湖西銀行을 新設할것을 發起하고, 其申請을 當局에 提出하였던바 一九一三年 三月一日에 其認可를 受하였으며, 繼續하여 株式募集等 諸般設立準備를 進行하였고 同年五月五日에 第一回 株金 七萬五千圓의 拂入이 完了되어서 同月二十一日에 創立總會를 開催하여 設立事項과 定款의 承認을 받고 取締役及監査役의 選任이 있었으며 取締役會에서 頭取에 俞鎮相氏, 專務取締役에 成樂奎氏를 互選하였고 同年七月 四日에 禮山에서 本店營業을 開始하였다.

以來業績은 順調로히 發展되고 時勢의 進運에 따라 一九一七年 八月一日에는 廣川支店(一九一九年 一月三十日에는 出張所로 變更)을 設置하였고 一九一九年 一月十日에는 天安支店을 設置하였으며 其間三次에 걸쳐 舊株에 對한 株金拂入을 全額完結하였고 다시資本金을 金壹百萬圓으로 增加하여 一九一九年 六月十九日에는 其新株 第一回 株金 拾七萬五千圓 拂入을 完了하였으며 同年十月十六日에는 安城支店을 設置하였다.

一九二一年 一月六日에는 京南鐵業株式會社를 吸收合併하여서 總資本金은 金貳百萬圓(拂入濟資本金七拾貳萬五千圓)으로 增加되었고 同年三月二十二日에는 洪城支店을 設置하는等 業績이 逐年 向上되었었고 一九二七年 八月五日에는 拂入濟資本金을 金壹百拾五萬圓까지 增額하였고 同年十月一日에는 鐵道交通의 要衝地에 있는 天安支店을 本店으로하고 禮山本店을 支店으로 變更하였으며 翌年十月二十七日에는 長湖院支店을 設置하였다.

以上과 如히 湖西地區의 地方銀行으로서 比較的順垣하고도 堅實한 業績을 示顯하고 있었으나 그規模가 작은편디리 地方的이어서 政治, 經濟의 中心地인 서울과의 連絡이 不便한 關係로 1931年, 一月二十日에 韓一銀行에 合併하여 東一銀行으로 再出發



徽 章

湖西銀行字樣

하였으며 創立以來로 解散되기까지 專務取締役으로活躍  
하였던 成樂憲氏는 다시 東一銀行 專務取締役으로서 其重  
責을 맡게 되었다.

## 年 譜

西紀一九一三年

俞鎮相, 成樂奎, 金鎮燮, 李基升, 崔圭錫氏外 數氏의 發起로  
資本金參拾萬圓(一株의 金額은 金五拾圓)의 株式會社 湖  
西銀行 設立 申請을 當局에 提出하여 認可를 受함.  
第一回 株金七萬五千圓 拂入을 完了함.

株式會社 湖西銀行 創立總會를 開催하여 設立事項과 定款을  
承認함.

取締役에 俞鎮相, 成樂憲, 成樂奎, 金鎮燮諸氏 就任함.

監査役에 李基升, 崔圭錫兩氏 就任함.

取締役會에서 頭取(代表取締役)에 俞鎮相氏, 專務取締役に 成  
樂憲氏를 互選함.

營業免許에 關한 認可를 受함.

當行設立登記를 함.

忠清南道 禮山郡 郡內 面場岱里二二 統五戶에서 本店營業을 開  
始함.

西紀一九一五年

監査役 李基升氏 退任함.

取締役에 李基升氏 新任함.

監査役에 崔圭錫氏 重任하고 張錫九氏 新任함.

西紀一九一六年

本店의 所在地를 禮山郡 任城面 禮山里 一五七番地 二號로 變更  
함.

取締役に 俞鎮相, 成樂憲, 成樂奎, 金鎮燮諸氏 重任함.

取締役會에서 頭取(代表取締役)에 俞鎮相氏 專務取締役に 成樂  
憲氏를 互選함.

西紀一九一七年

第二回 株金七萬五千圓 拂入을 完了함(拂入濟資本 金拾五萬圓)  
廣川支店 設置認可를 受함.

監査役에 崔圭錫, 張錫九兩氏 重任함.

廣川支店 開業함.

西紀一九一八年

第三回 株金七萬五千圓 拂入을 完了함.(拂入濟 資本金貳拾貳萬五千圓)

取締役 李 基升氏 重任함.

天安支店 設置認可를 受함.

西紀一九一九年

天安支店 開業함.

資本金을 金七拾萬圓 增加(一株의 金額은 金五拾圓)하여 總額을 金壹百萬圓으로 하기로함.

資本金 增加에 關한 認可를 受함.

舊株 第四回 株金七萬五千圓 拂入을 完了함.(拂入濟 資本金參拾萬圓)

安城支店 設置認可를 受함.

新株 第一回 株金拾七萬七千圓 拂入을 完了함.(拂入濟 資本金四拾七萬五千圓)

取締役 李 基升 辭任함.

監査役 張錫九氏 辭任함.

取締役에 俞鎮相, 成樂惠, 金鎮燮諸氏 重任하고 張錫九, 鄭斗和 兩氏 新任함.

監査役에 崔 圭錫氏 重任하고 李慶世氏 新任함.

取締役會에서 頭取(代表取締役)에 俞鎮相氏 專務取締役에 成樂惠氏를 互選함.

天安支店 移轉함.

安城支店 開業함.

西紀一九二〇年

洪城支店 設置 認可를 受함.

取締役에 閔裕植氏 新任함.

安城支店 移轉함.

京南廣業株式會社를 吸收合併함을 可決함.

京南廣業株式會社 合併 認可를 受함.

西紀一九二一年

京南廣業株式會社를 吸收合併함.

資本金은 合併으로 因하여 金壹百萬圓 增加(一株의 金額은 金五拾圓)되어 總額 金貳百萬圓으로됨(拂入濟 資本金七拾貳萬五千圓)



監査弘氏에 金濟弘氏 新任함,  
洪城支店 開業함.  
監査役 李慶世氏 退任함.  
監査役에 崔圭錫氏 重任함.

西紀一九二二年

取締役에 金鎭燮, 成樂憲, 俞鎭相, 成樂奎, 鄭斗和, 張錫九 諸氏 重任함.  
取締役會에서 頭取(代表取締役)에 金鎭燮氏, 專務取締役에 成樂憲氏를 互選함.  
本店을 禮山郡 禮山面 禮山里 四八三番地로 移轉함.

西紀一九二三年

監査役 金濟弘氏 退任함.  
取締役 俞鎭相氏 辭任함.  
取締役 閔裕植氏 退任함.  
監査役 崔圭錫氏 退任함.  
取締役에 金世鎬, 崔圭錫兩氏 新任함.  
監査役에 俞鎭相, 閔裕植兩氏 新任함.

西紀一九二四年

監査役 俞鎭相氏 別世함.

西紀一九二五年

取締役에 金鎭燮, 成樂憲, 成樂奎, 鄭斗和, 張錫九 諸氏 重任함.  
監査役에 閔裕植氏 重任하고 金星權氏 新任함.  
取締役會에서 頭取(代表取締役)에 金鎭燮氏, 專務取締役에 成樂憲氏를 互選함.

西紀一九二六年

取締役에 崔圭錫, 金世鎬兩氏 重任함.  
天安支店 移轉함.

西紀一九二七年

取締役에 李錫九, 李慶世, 吳建泳 諸氏 新任함.  
廣川支店 移轉함.  
監査役 閔裕植氏 退任함.  
監査役에 金星權氏 重任하고 金炳鵬氏 新任함.  
新株 第二回 株金四拾貳萬五千圓 拂入을 完了함. (拂入濟 資本金壹百拾五萬圓)  
本店 移轉及 禮山支店 設置 認可를 受함.

本店을 天安郡 天安面 邑內里二六〇番地로 移轉함. (前天安支店)

禮山所在<sup>7</sup>前本店을 禮山支店으로 變更함.

西紀一九二八年

取締役に 金鎭燮, 成樂憲, 成樂奎, 鄭斗和, 張錫九諸外 重任함.  
取締役會에서 頭取(代表取締役)에 金鎭燮氏, 專務取締役に 成樂憲氏를 互選함.

長湖院支店 開業함.(設置認可 日字未詳)

西紀一九二九年

取締役 成樂奎氏 辭任함.

取締役 金世鎬氏 退任함.

監查役 金星權氏 退任함.

取締役に 崔圭錫氏 重任하고 白南復氏 新任함.

監查役に 金炳 翺氏 重任하고 金世鎬氏 新任함.

廣川支店을 洪城支店 廣川出張所로 變更함.

大川支店 開業함.

西紀一九三〇年

取締役 李錫九, 李慶世兩氏 退任함.

取締役に 吳建泳氏 重任함.

取締役 鄭斗和氏 辭任함.

取締役に 朴炳烈氏 新任함.

株式會社 韓一銀行에 合併하는 契約을 締結함.

臨時 株主總會에서 株式會社 韓一銀行에 合併하는 것을 可決함.

西紀一九三一年

株式會社 韓一銀行과 合併하여 東一銀行으로 出帆.

一 株主들을 中心으로한 地主層 分析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李 恆 馥 記)



## 獨立不羈의 義俠志士

### 一鳶 申鉉商 先生의 一生

李 康 勳

湖西銀行 特輯을 위오매 있어 大韓獨立運動資金을 湖西銀行에서 1930年 巨金인 5萬8千圓을 떼들었던 一鳶 申鉉商 先生의 一代記를 여기 엮어본다. (編者註)

一鳶 申鉉商 先生은 一九〇五年 一月 二〇日 禮山郡 禮山邑 新禮院에서 儒學者이신 申學均翁의 長男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性格이 敏捷하고 頭腦가 總明하였던 先生은 十餘歲에 經書를 通讀하였고 特히 '春秋' '史略' 읽기를 좋아하였다.

어려서 民齊先生의 薰陶를 받았고 자라서는 史學家인 涯齋 權 惠奎 先生의 教化를 받았으며 일찍부터 亡國의 恥辱을 痛憤히 여기고 慷慨의 뜻이 깊었다.

一八歲되던 해에 抗日祖國運動에 몸바칠 뜻을 세우고 鄕閭을 떠나 愛國先輩들을 찾아 다니며 經世와 彰義의 길을 찾던중 當時에 風마하던 無政府主義思想에 傾倒하게 되었다.

二十五歲되던 一九二九年에 다시 國境을 넘어 千辛萬苦로 上海와 浙江省一帶를 떠돌며 依託할데 없이 漂流하다가 民國事務員이 되었고 國立上海勞動大學을 修了하였다.

當時의 逸話로 窮蹙한 生計도 돕고 學費도 얻기 위하여 平素體得했던 才能을 발휘 漢字書藝의 本고장인 中國땅에서 自身의 書藝作品을 路上에서 販賣하여 相當한 人氣와 評價를 받으며 용돈도 넉넉히 벌어들였다고 한다.

當時는 上海臨時政府가 많은 波瀾과 意見對立으로 分裂되었고 美洲와 內國에서 보내오던 資金도 거의 끊어져 財政上으로 매우 困境에 처해 있던 時期여서 先生은 어떤方法이던 獨立運動資金을 調達할 뜻을 품고 國內로 潛入 鄕里로 들어와 舍德에서 精米業을 하고있던 崔 錫榮 同志를 만나서 民族의 自覺을 促求, 資金調達의 方法을 研究, 國民個個人의 피해 없이 營業하는 方案을 채택하게 되었다.

崔 錫榮同志와 謀議를 거듭하던끝에 銀行을 속여서 大金을 떼내기로 計策을 정하고 禮山의 湖西銀行에 偽造換證을 利用하여 五萬八千圓이 란 巨額의 돈을引出해 가지고 의심을 덜받는 崔 錫榮으로 하여금 五萬八千圓을 갖고 뒤쫓아 오도록 하고 本인이 三千圓을 감추어 가지고

上海로 向하던 途中 北京에 도착, 잠시 머물게 되었다.

때마침 北京에서는 滿洲와 中國一帶의 獨立運動者들이 모여 大會를 開催하고 있었다.

先生도 이 大會에 參席하였다가 鄭華岩 등 無政府主義 先輩 同志들도 만났는데 여기서 알게된 同志 柳基碩의 주선으로 天津 日本領事館을 襲撃하기 위한 拳銃, 炸彈을 購入하고 機會를 노리다가 舉事直前 日本軍憲에게 逮捕되었다.

큰 돈이 온다는 소식으로 臨時政府와 獨立運動 陣營에 큰 希望과 기대를 주었던 謀事は 허망하게 水泡로 돌아가고 당시 함께 逮捕되었던 鄭華岩, 李某, 金鍾鎮 同志들은 留學生이란 身分으로 석방이 되었으나, 一濤와 崔錫榮 同志는 國內에 압송되어 5年 刑을 언도받고 4年의 獄고를 치루게 되었다.

이 舉事は 비록 有終의 美를 거두지 못하고 失敗로 돌아갔으나 國內외의 獨立運動戰線에 한때나마 큰 興奮과 波紋을 일으켜 士氣를 올렸던 것이다.

先生은 五年刑을 言渡받고 公判刑務所에서 四年을 服役한 끝에 一九三三年 十二月末에 出獄하여 公州의 愛國志士인 金明東, 儒學者인 金澤 등과 親密한 交分을 갖고 肝膽을 相照하기도 하고 젊은 後學同志들을 골라 民族思想을 鼓吹하기도 하였으며, 鄭里에서 멀지않은 牙山 仙掌에서 간척事業을 유도하여 地域社會發展에 공헌하는 한편 서울을 往來하며 尊敬하며 私淑하던 心山 金昌澈先生을 비롯 一洲 金振宇, 啓慶 方應讓 등을 찾아 心懷를 털어 놓고 後日을 期約하곤 하였다.

마침내 一九四五年 八·一五解放이 오자 서울로 올라온 先生은 그해 겨울 金昌澈先生의 薦舉로 京橋莊 大韓民國 臨時政府主席 白凡 金九先生의(辦公室長 秘書室長格)에 就任하게 되었다.

京橋莊에서의 활동 가운데 白凡先生의 指示를 받고 尹奉吉, 李奉昌, 白貞基 등 三義士의 遺骸를 本國으로 送還하는 일을 日本에서 오랜 獄苦 끝에 解放이 되자 釋放되어 民衆議長을 맡고 있던 李康勳志士와 協力하여 推選하는데 主役을 담당하였다.

三義士는 敵地日本에서 死刑이 執行되어 埋葬돼 있었던것을 國民葬의 禮로 奉還하여 孝昌公園에 安葬되었던 것이다.

그뒤 先生은 京橋莊을 나와 朝鮮民族青年團 總本部의 鐵驥 李範爽將軍의 國內組織 및 人士連絡을 特別擔當하는 補佐役으로서 白凡麾下에 있는 臨政系統을 비롯한 各團體, 政界人士들과의 連

繫와 協力推進에 盡力하였다.

一九四八年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고 法律에 依한 反民族特別 調査委員會가 發足되자 檢察官으로 推薦되어 辛泰嶽, 鄭國殷 등 四人을 擔當하며 民族正氣匡正回復에 勞心하였으나 李博士政權의 解體壓力으로 有耶無耶가 되자 快快不樂의 心境을 금치 못하고 公洲로 落鄕하여 一年餘 동안 青年訓練에 진력하였다.

一九四九年 第二代 國會議員選舉가 있게 되자 周圍同志들의 勸告를 받아 韓獨黨의 公薦으로 (五·三〇日 選舉) 立候補하여 終盤에 이르기까지 壓倒의인 信望과 人氣로 거의 當選이 確實視되었으나 終末本人은 南北協商派로 몰려 逮捕 危脅을 받고 避身하게 되고 運動員들은 行動을 中止하게 되며 壓倒의多數票를 얻은 公洲 邑을 除外하고는 外郭地域에서 뒤떨어져 겨우 五百票의 少差로 落選하게 되었다.

選舉에서는 敗北였으나 서울에서 海公 申 翼熙先生, 趙 素昂先生등 이 함께 政治活動에 參與하기를 從容하므로 六月 中旬 上京 하였던가 六·二五動亂이 勃發하자 다시 公州로 돌아와 있던중 戰勢가 점점 惡化되어 共產軍의 南下가 계속되자 七月十六日 公州의 青年同志十餘名을 데리고 徒보로 大田方向으로 피난중 계룡면에서 敵軍에게 逮捕되어 大田의 收容所에 수감되었다가 後退當時 無差別 학살에 犧牲이 되고마니 苦難의 一生이 恨恨을 남기고 끝맺게 되었다.

그뒤 先生의 遺德을 追慕하며 남긴 뜻을 기리기 위하여 一九七五年 八月 金信 李 康勳, 徐英勳등과 禮山의 有志들이 뜻을 모아 出生地인 新禮院故家터에 一基閣과 追慕碑를 세웠고 一九七六年에는 政府로부터 建國褒章을 받게 되었다.

남은 遺族으로는 末亡人 金 鳳順女史와 二男 (在右淳, 斗淳) 二女가 있다.

그중 斗淳은 현재 國政諮問會議議長 秘書室長.

(註) 筆者 李 康勳은 獨立運動家이며 一鳶先生과 오랜 同志關係가 있고 現 尹奉吉義士 記念事業會長임.

申 錫 根

지치고 야윈 어깨  
풀밭에 드리운 농부  
세월에 찌든 가슴  
찬 이슬에 젖어들고  
천년꿈 흙속에 묻혀  
태고정이 흐르는 들.

쟁이로 파 올리는  
살뜰한 푸른 꿈이  
바람에 부풀어 올라  
산야에 그득해도  
종상에 굳은 마음은  
그 날 달한 그대로.

홍겨운 풍년가가  
깃발처럼 나부긴다.  
흐르는 시냇물에  
녹슨 세월 흘러우고  
농부여, 농부님이어 /  
새 하늘을 엮시다.

(詩)

# 가슴 앞 이

소금속



그리도 빛나던 태양은  
어둠에 묻혀.

너를 향한 그리움은  
심장에서 피어오르는  
한 응큼의  
꽃송이 여라.

뜨거운 열기속에서  
바람의 용어리가 서서히  
공중을 향해 피어 오를때.

대지는 검은 젓빛으로 물들이고  
끼쳐간 숨결이언만.

너의 애증의 진리들을 영원한  
가슴 앞이로 간직하련다.

## 劃期的인 發展基盤 施設

- 誠實한 奉仕姿勢로 和合과 團結 -

禮山郡守 朴 勝 瑄



尊敬하는 14萬 郡民 여러분 / 그리고 出郡人士 여러분 /  
丁卯年의 새아침을 맞아 먼저 希望찬 새해에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가득하심과 計劃하시는 모든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삼가 祝願하  
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에는 온 郡民과 出郡人士 여러분들께서 積極的  
으로 聲援해 주신 德澤으로 보람있고 活氣찬 郡政을 遂行할수 있었음을  
感謝드립니다.

새해 丁卯年에도 郡政을 보다 住民의 便益을 위해 저희 600餘 公  
務員들은 오직 誠實한 奉仕姿勢로 和合과 團結로서 郡民의 生活便益을  
위하여 各其 負荷된 任務를 다하는데 最善를 다하고자 합니다.

새해의 希望의인 事業으로 溫陽까지된 4次線 國道の 禮山까지延長  
擴張工事와 無限橋의 改設를 비롯한 農工園地의 決定으로 郡勢의 劃期  
的인 發展基盤施設이 展望되며 13億 4千萬원의 水害復舊工事(東山橋  
5億 2千萬원, 貴谷橋 9千萬원 15個所의 濬工事 2億 3千萬원 其他 河  
川 및 堤防工事 等)의 着實한 마무리와 耕地整理 388 畝(新陽 地區  
288 畝 新禮院地區 80 畝, 插橋地區 80 畝)에 23億 4千萬원으로 推進하  
고 있으며 그밖에 農村所得源 道路開設 새마을 廣域團事業 및 가꾸기  
等 其他事業으로 11億을 投資하며 觀光開發事業으로 禮唐貯水池 國民  
觀光地 開發事業을 9億 5千萬원으로 着工하였으며 德山溫泉開發과 修  
德寺 集團施設地區開發 그리고 文化投資事業으로 秋史記念館建立과 公  
設運動場建設의 推進等 總 66億을 投資하여 今年度 事業計劃을 樹立하  
여 推進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一連의 施策이 보다더 알찬決  
實을 맺기 위해서는 어느 몇사람의 努力만으로는 充分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온郡民과 出郡人士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아래  
衆智를 모아주시고 힘을 합쳐 주실때 우리 禮山郡은 보다더 活氣있게  
前進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傍觀보다는 參與를 批判보다  
激勵을 아끼지 마시고 郡政을 믿어주시고 聲援해 주신다면 今年에는  
그 어느때보다 힘찬 跳躍을 할수있는 알찬 郡政이 이룩되리라 確信하  
입니다. 끝으로 丁卯年 새해 여러분의 健勝을 빌며 더욱 많은 指導鞭  
撻로 忠節의 우리고장 禮山의 無限한 發展을 위해 다같이 힘써 주실  
것을 當付드리며서 不備禮합니다.



## 團結된 힘과 力量으로 跳躍

- 큰抱負와 確固한 技量으로 丁卯年 맞아 -

禮山警察署長 朱 淳 明



희망찬 새해의 설레임속에 정묘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흔히 일년의 지계(之計)는 원단(元旦)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신년의 알찬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군민 여러분께서는 신년의 크고 웅대한 포부로 기쁨과 환희가 역력한것 같습니다. 정묘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루고자하는 일들이 전부 성취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힘찬 도약을 표방하면서 우렁찬거보를 내딛었던 병인년에는 건국이래 최대행사인 '86 아시안게임, 온 군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금강산댐 건설과 좌경극렬해 가는 각종 집단사태 등으로 희노애락이 교차되는 한해였습니다.

군민 여러분!

군민의 단합된 힘과 역량으로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국가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어 우리 국민의 위대한 민족성과 지력을 자랑할수 있었던 것은 적게는 군민 여러분들의 지역치안에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관내에서 큰사건 사고없이 보이지 않는 국가의 숨은 역량의 근원을 이루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어느때 보다도 큰포부와 확고한 신념으로 정묘년의 첫발을 내딛는 현시점에서 군민의 불편해소와 관내 치안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급년에는 군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관민이 협력하는 경찰행정을 수행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복괴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불순세력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의식 고취와 경계태세를 강화 하겠으며 국민의 생존권 및 안녕보호를 위하여 범죄예방과 검거에 주력하고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선도 위주의 청소년 순화에 우리경찰은 분골쇄신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고 올해 목표하신 일 모두가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뫏뫏한 韓國人 育成」指標

### — 使命感과 召命意識으로 人格陶冶 —



禮山郡教育長 李 英 馥

親愛하는 教育同志 여러분! /  
燦爛한 丁卯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莊嚴한 歷史의 章이 펼쳐 지러는 希望찬 새해를 맞이하여 教育家族 여러분의 健康과 家族에 萬福이 깃들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本郡 教育發展에 아낌없는 聲援을 보내주신 郡民여러분께 感謝드리고 學生指導에 盡力하신 여러분의 勞苦에 眞心으로 敬意를 표합니다. 이 한해동안 우리는 誠實하게 가르치고 熱心히 배우는 教育的 熱氣를 불살라 이제 값진 結實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고장 다음 世代를 기르기 위하여 고장의 忠節精神을 繼承하고 實踐하는 教育에 힘썼으며 內實있는 教育과 責任지는 學力으로 學力增進에 最善을 다하였고 21世紀를 向한 科學技術教育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幼兒教育의 擴充 및 內實等 全教育領域에 걸쳐 先進化를 위한 基盤造成에 最善을 다한 값진 한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先進組國을 創造하기 위한 國民의 뜻과 힘을 凝集해야할 時代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뫏뫏한 韓國人 育成」의 指標아래 앞장 教育을 推進해 나갈으로써 愛國愛族하는 忠節人, 未來社會에 對處할 수 있는 知性人, 自我를 實現해가는 健康人, 을 길러내는 先進 禮山教育을 이룩하는데 힘을모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鄉土忠節人 鄴 傳承教育과 敬老孝親教育을 더욱 알차게 推進해 나갈 것이며 莫重한 教育的 所任을 다하기 위해 「學力增進」을 責任있게 實現해 나가겠습니다. 學生들의 替在力을 極大化시키기 위한 教授力을 伸張 授業能力을 높여 나가고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教育風土助成과 指導의 個別化로 替任能力의 最大限 發揮에 持續的인 努力을 傾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基礎科學 教育的 充實로 高級科學技術人을 育成 尖端產業社會를 이끌어갈 產業技術人 養成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며 '87 少年體典에 對備하여 強度높고 科學的인 訓練을 서둘러 體育禮山의 榮光을 살려나가고 '88서울 올림픽에 對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學生中心의 알뜰한 學校環境造成을 위하여 教室의 增 改築 및 老朽教室 改修와 職勤 代替等 教育與件을 改善하고 完績대로 보상받는 正直하고 誠實한 奉仕行政으로 敎壇人이 禮遇받으며 學生教育에만 專念할 수 있는 環境마련을 위하여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信賴와 和合과 精進으로 禮山教育이 先進 忠厚 教育을 主導할 것을 기대하면서 教育同志 여러분의 앞날에 커다란 發展과 榮光이 있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 任 存 城

### -任存城頂上 白日揚에서의 金賞-

임성중학교 2학년 이 중 섭

나그네 발걸  
임존성 산허리에 다 다르니  
옛 고향이 방긋 거리고  
옛 조상들의 성어는  
바람결 귀 바퀴 스치네.

무심코  
곤혹스런 발바닥밑은 꿈틀거리누나.

옛 조상들 천국만나 호령이  
한줌 흙을 불끈 쥐어  
흙이 날리니

꽃마루는 시큰시큰  
성골의 내음이

아-  
거룩한 임존성이여.

흔적을 평정시킨 옛 조상들이여 /  
불끈 솟는 태양에 더욱 빛을 발하여

발전에 극을 치말는  
대한 조국의 지침돌이 되어 주소서.

### 발 자 취 를 따 라 서

### -任存城頂上 白日揚에서의 金賞-

광시중학교 2학년 윤 회 정

선현의 발자취를 따라온 이곳. 임존성 산들바람이 나를 맞이  
하며 상큼한 냄새를 내뿜었다. 오르는 동안의 짜증스러웠던 것고  
나의 눈은 푸르름으로 가득 찼다. 신록이 우거진 산은 아름다움  
보다는 시원한 느낌이 감돌뿐이다. 깎아내릴듯한 절벽은 현기증

마저 일으키게 했다. 제멋대로 생긴 풀잎들도 아무말없는 것처럼  
 임존성은 침묵으로서 나를 맞이했고, 바람소리만 켜기에 땀을  
 있다. 휘날리는 머릿카라 사이로 보이는 공간마저 아름답다.  
 수없이 나를 때리는 바람은 밭다는 생각은 저버리고 임존성의 모  
 습에 감탄할 뿐이다.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될수 없는 이곳은 황  
 홀한 생각이 들정도이다. 갖가지 많은 전설이 내머릿속을 스쳐  
 지나갈때 나는 그것을 붙잡고 싶었다. 분하고 참을수 없는 묘순  
 이 바위의 전설, 슬픔으로 가득차고 까야만 나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말없이 잠들어 있는 임존성. 그것은 백제의 온화한 성  
 품처럼 오늘도 말없이 잠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백제는 내성적인 아이 같다. 푸른 떡갈나무 숲 사철내내 변치않  
 는 푸른 소나무들이 임존성을 싸서 보호하고 있었다. 그 때  
 의 정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은 바위와 함께 잠들어 있다.  
 '조상들의 빛나는 발자취를 따라 조금더 깊이 새겨보자는 우리  
 의 뜻을 임존성은 이해하고 있을까?' 묘순이의 회생으로서 비  
 비로소 임존성이라는 존재가 생긴것이다. 고요함속에서 맑은 목  
 탁소리만 들리던 '극락전' 이곳은 깨긋했다. 그렇지만 다른곳과  
 같이 경건함과 엄숙함은 여전했다. 깊은산속에서 보일듯 말듯하  
 게 감춰져 버린 조상의 발자취. 오늘도 그곳은 고요함만이 생하  
 고 있다 하얀길을 따라와 올라선 이곳 췌지 포근했다. 목이 타  
 는것 같은 갈증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곳의 아름다움을 원고지에  
 몇자적는다는 것조차 무례함이라고 생각했다. 상큼한 바람은 아  
 직도 나의 얼굴을 때리고 있다. 옛날 장수들이 성을 빼앗기지 않  
 으려 했던 끈질긴 마음은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있다. 제  
 각기 나온 높고 낮은 모든산. 제멋을 자랑하고 깊은 산속의 새  
 소리는 임존성을 잊지 못하게끔 하고 나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  
 갔다. 나뭇가지끼리 부딪히는 소리도 나뭇잎이 팔랑거리는 소리  
 도 아름다운 느낌이 든다는 것은 임존성에게 넘어 빠진 것인지도  
 모른다. 썩썩했던 장군의 모습, 능률한 생각이 든다. 유난히도  
 하얀 옷을 즐겨 입어 백의 민족이라는 것은 임존성을 일컫게 했  
 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아름다움 때문일 것이다.

임존성 /

언제 볼리봐도 정겨움이 가득할뿐 이다. 송아가루가 날리는 이  
 곳,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산. 모두모두 아름답지만 임존성의 아름다움  
 은 비교가 안된다. 상큼한 바람도 나에게 정이 들었나 보다. 그세던  
 바람도 나의 몸을 감싸고 돌고 있다. 구름마저도 내머리위에 있어 달  
 을듯 하다. 나는 오늘도 조상들의 발길을 따라 그들의 자취를 찾으려다  
 선현들의 발길을 찾아서.....

## 임존성 유적지 순례 및 백일장 대회

지난 5월 18일 군내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대흥면에 소재한 임존성 정사에서 백제부흥군의 넋을 추모하면서 백일장 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문화제의 인허과 그 유래를 학습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며 아울러 문화제 주변 정화활동도 함께 전개함으로써 내고장 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계승발전 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시상식은 7월 18일 문화원회의실에서 경로효친 실천수기 시상과 함께 있었으며 심사위원은 이 대열씨 작가 추석 현연희 정리다오 선생이 맡아주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 운문 )

성적	성명	원고제목	학교
금상	이충섭	임존성	임성중 2-1
은상	이우제	"	예산중 2-10
동상	김수현	"	광시중 2-4
장려상	김연호	"	대흥중 2-3
	주진화	"	광시중
	명은주	"	대흥중 2

### ( 산문 )

성적	성명	원고제목	학교
금상	윤희정	발자취를따라서	광시중학교
은상	이순자	임존성	"
동상	박남순	"	예산여중
장려상	안희순	"	대흥중
	이미영	"	예산여중
	이경희	"	"

## 온몸으로 努力하여 創造할터

禮山演劇모임會長 오 규 섭



금년도 한해가 저물어 간다. '86년 한해가 새롭다. 연극에 뜻이 있는 몇사람이 자리를 함께하여 3월 29일 창단하고 연극의 당위성을 느끼고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의 몸부림에 장범순 작「달팽이들의 연극」이란 작품을 창단무대에 올렸습니다.

대중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공연이 고급문화로서 존속하기 어려우리라 본다. 이시대의 연극이 사회발전과 대중에 어떤 기여를 해야하는가 깊이 생각하며 인간 행위에 완성이 가능한가를 뒤물게 되지만 모든 문화 특히 연극은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고 과정이고 극복이라고 본다.

예산연극 모임도 예외 일수 없다. 예산문화계에 연극모임이 남겨진 86년 다시 '87년의 새해를 연 도약의 시간으로 기대하면서 온몸으로 노력하고 창조하는 예산 연극모임 소관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 文化財 作品展 가질터

禮山寫友會長 신 현 성



저희 예산 사우회가 창립한지도 벌써 7년째로 접어들면서 그간 매년 회원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사진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사진이란 기계적 매체를 통하여 작가의 주관에 의한 표현을 영상화함으로써 사진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진으로서 사회적, 시대적인 기록을 전달함으로써 후세에 역사적자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행으로 우리 예산사우회에서는 '86년부터 예산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 유, 사회적 도록편찬 및 사진전에 사진부문을 저희 예산사우회가 담당한바 전회장단에서 현재 80%의 진척을 이루고 있어 금년에도 계속적으론 유사적지를 순례하며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답습하고 영상으로 정립하여 '87년에도 꼭 유사적지 사진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바라고 싶은게 있다면 우리 예산지역에 좀더 많은 사진 인구가 참여하여 사진계에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先賢의 工藝를 이어 받들터

禮山工藝同人會長 金 季 煥

여러분들께서 성원에 주신 덕택으로 따뜻한 한해를 보내고 대망의 1987년을 맞이하여 나무와 彫刻刀(칼)를 갖고 先賢의 열과 애생 활의 深하고 絶妙한 경지를 이루었던 祖上의 그 멋과.....

목공예의 再現.....

흙과 火이 만나는 窯炎에서 陶工의 호흥과 순길을 붙여넣는 秘境 속에서 獨特한 色相 靑瓷과 白磁의 재현하려는 동인회이지만 2천년 대의 세역사속에서 공예의 일군이 되기 위하여 멀고도 험하지만 힘껏 노력 하겠습니다.



## 知 慧로히 意 志로히 精 進

琢磨讀書會長 권 태 입



늘 책을 아끼고  
아견만큼 소박히 살고자함은  
처음이나 여섯살이 된 지답이나  
변함없는 탁마의 뜻입니다.  
지역사회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화에  
작은힘이 되고싶은 욕심으로  
제 2회 시화전과 문집을 펴내고는  
저희끼리 감회에 젖어  
여전히 탁마를 지켜주고 계신 많은분께  
깊은 감사드렸지요.  
고운심성으로 매끄럽지 않아도  
티없이 맑게사는  
우리고장의 예모있는 여성상으로  
탁마가 항상 기억되도록  
내년에도 더욱  
지혜로히, 의지로히 정진하리라  
다짐합니다.

## 노래속에 平和와 사랑심어

梅軒合唱團長 김 영 숙

세월의 흐름을 그 누가 맞아졌습니까?

홍구우 공원의 폭음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한데.....

저희 매현합창단은 애국 애향 봉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둡고 쓸쓸한 곳곳에 찾아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방에 메아리 칠때 이사회엔 어둡고 쓸쓸한곳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오듯이 저희 매현은 연년이 이어 모든이를 말속에 평화와 사랑을 가득실어다 드릴것 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많은 봉사의 정신으로 예산군민 모두가 바라시는 양보다 질을 높이는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매현합창단을 지켜보아 주신 모든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梅軒文化祭 島中島서 盛了

梅軒 尹奉吉의사를 기리는 제 13회 梅軒文化祭가 4월 29일 2만여명의 예산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중의사 (덕산면 시랑리) 에서 열렸다. 명실공히 예산군민의 축제로 자리잡은 梅軒文化祭는 “현 문학의 밤”을 시작으로 씨름, 궁도, 서예백일장, 글짓기대회, 농악경연대회, 널뛰기, 그네뛰기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月進會 (회장 尹圭相) 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자흥원이 후원한 이번 문화제는 예산지역출신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尹의사의 농촌부흥 운동정신을 기리기 위한 민예품 전시도 가진 40여개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사상최대의 민간주도 문화제임에 다시한번 우리에 대한 긍지를 느낄수 있는 축제한 마당이였다.



## 어버이날 및 敬老週間 行事



5월 8일 제 14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예산읍사무소(읍장 황선갑)에서는 군내 할아버지, 할머니 600명을 초청경로위안잔치를 성대히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자효부착한어린이 시상식도 가졌으며 눈이 어두운 할아버지, 할머니 10분에게 경로안경증정식도 가졌다.

황선갑읍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어버이 은혜를 깊이 느끼며 경로하는 좋은 미풍양속을 길이 빛내야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원하였다.

제 2부에서는 예산문화원 소속 "예언사물놀이"패의 흥겨운 가락과 국악회원들의 "창"으로 오랜만에 푸짐한 음식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 내 고 장 遺蹟地 巡禮 (任 存 城)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유적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내고장 유적지순례행사를 마련하였다.

문화원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군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하여 대흥면 동서리에 소재한 대련사 및 임존성으로 출발한 남녀 중학생 200여명은 5월의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대련사 도착 유래를 듣고 곧이어 봉수산 임존성터에 올라 이수女史의 설명을 듣고 선현들의 발자취를 느끼며백일장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은 단순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등산과 유적순례를 곁들인 야외소풍까지 겹쳐 땀방울을 흘리며 생각하는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 青少年文化講座 盛了

### 禮山文化院 年例事業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군내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강좌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지역인사 및 학자들과의 만남의 기회와 대화를 나누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가치관과 윤리관등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내고장 청소년들에게 애향하고 애국하는 마음가짐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올바른 인간성 정립으로 주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실시하는 이번 청소년 문화강좌는 5월 27일~31일(토) 5일간 매일 3시간씩 강의를 하였는데 총인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강사로는 예산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군수, 경찰서장, 문화원장, 각급학교교장들로 구성되어 열띤 강의를 펼쳐 주었습니다.

## 女性을 爲한 性教育 講座

禮山文化院에서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한 "여성의 성지식"이란 제목으로 성교육강좌가 지난 6월 18일 오후 6시 30분에 문화원회의실에서 있었다.

유한킴벌리社 협찬으로 가진 이번 강좌는 기본적인 성지식을 알리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슬기로운 삶과 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것이 지인스러움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많은 참석자들은 어려워서 고민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음에 아쉬움을 가졌는데 간단한 성지식이나 마 배울수 있어서 무척 고맙다며 종종 이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주최측에 더 많은 노력을 바라고 있었다.

## 내 고 장 文 化 論 壇

- 秋史誕辰 200 周年記念 講演 -

禮山文化院 開催



6월 내고장 문화논단이 6월 20일(금) 오후 4시 예산농대 시청각교실에서 열렸다.

추사김정희선생의 학문과 예술을 주제로한 이번 문화논단에는 최완수교수(서울대)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애와 예술과 학술"과 박성홍선생(지방사학자)의 "용궁리 주변과 추사선생의 아호"에 관한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행사는 내고장 출신의 다재 다능했던 선현의 숭고한 학문세계 특히 추사체가 탄생되기 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논하여 추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 36 周 6.25 反 共 厥 起 大 會

郡 民 反 共 會 館 에 모 이 어 盛 了

제 36 주년 6·25를 맞이하여 예산군에서는 반공 안보궐기대회를 6월 25일 오전 10시 반공회관에서 600명의 예산군내 직장인들이 모인 가운데 절사있게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반공어린이 시상식 및 웅변, 6·25, 체험담, 북괴김일성에게 보내는 경고문, 구호제창, 안보결의문 채택등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만세삼창으로 80분간의 궐기대회를 마쳤다.

제 2부 계획으로 가두행진에 들어서 합주단의 반주에 맞춰 플라카드와 관을들고 군내를 한바퀴돌고 해산하였다.



## 秋史學藝碑 除幕式

- 故宅앞 잔디 廣場에서 -



추사김정희선생의 학문적 예술적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사학예술품 제막식이 86년 7월 6일 오후 2시 신암 용궁리 추사고택에서 가졌다.

150여명의 학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제막식은 민족문화추진회(이병도박사), 전국시가비건립위원회(회장 김동욱), 예산문화원, 경주김씨 월성위종중등 뜻있는 단체들이 주관 아담한 화강암과 오석으로 제작했다.

관심있으신분은 신암 추사고택으로 가보시길하다.

## 敬老孝親 實踐手記 施賞

예산문화원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경로효친 실천수기를 공모하여 지난 7월 18일 시상식을 가졌다.

심사위원은 이 대열씨 추 식씨 그리고 정리다모 한원희 선생님 네분이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 격	성 명	원 고 제 목	학 교
금 상	박 은 애	어머이 가슴에 살며시	예 산 이 중 1-3
은 상	황 본 자	엄마 이제 웃으며 살아요	신 암 중 2-5
동 상	김 윤 배	바르고 참된 길	예 산 중 3 학 년
금 상	이 경 근	우리 할머니	예 산 중 앙 국 교 6-3
은 상	이 금 식	내 마음속에 새긴 작은 효도	평 촌 국 교 6-1
동 상	박 재 연	엄마는 우리가 지킬거야	용 봉 국 교 6 학 년
장려상	박 수 진	부모님의 사랑	예 산 국 교 5-2
	임 회 수	세월의 훈장	오 가 국 교 6-1
	김 은 주	따뜻한 할머니의 손	예 산 국 교 6-1

## “ 레 크 레 이 션 ” 講 習 會

禮山文化院會議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여유있게 물리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강습회가 지난 7월 26일 예산 문화원의 주최로 회의실에서 있었다.

활동성있는 직장여성 및 일반인 80여명이 참가하여 강사 김 중우(한국지역 사회학회 후원회)씨의 강의와 실습으로 여성들의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 禮 山 演 劇 創 團 公 演

지난 3월 29일 예산군내 젊은 지성인들로 구성된 「예산연극모임」이 창단되었는데 현재 회원들의 열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9월 26일 오후 7시 신라예식장에서 「달팽이들의 연극」이라는 첫 공연을 문화원의 지원으로 가졌다. 이 작품은 장범순씨의 창작 희곡으로서(한국 극작 워크샵 작품)전상필씨에 의해 연출되었는데 내용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젓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비유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법은 그들을 간섭 심판할수 없다는 모더니즘의 한 형태를 표현해 내었다.

이 발표회엔 각급기관장 및 많은 관객들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창단공연을 끝마쳤다.

「예산연극 모임」은 앞으로 연극관람의 기회가 거의 없는 예산군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작품으로 성의이 보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탈춤講習會

탈춤 강습회가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동안 예산문화원 국악실 및 원내에서 개최되었다.

강사는 지방연극인 이대열씨가 이론을 맡았으며 해전대 봉산탈춤 보유자인 김경숙씨가 실기강사로 초빙되었다

이강습회는 예산군내 관심있는 일반인 및 학생 80여명이 참가하여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옛 선조들의 멋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琢磨讀書會 詩畫展



지난 10월 10일과 11일에는 제 2회 시화전을 문화원 화랑에서 열었다.

1981년 창단된 탁마독서회는 지난 85년 제 1회 시화전 및 제 1회원집을 발행한후 올 86년에 들어 지난 4월 자작시낭송회 6월 교도소 방문, 7월 독후감발표 및 시상, 8월 해변세미나, 9월 문학강좌등에 이어 탁마회는 12월에 탁마2집을 발간하였으며 시화전에서도 좋은 작품을 내놓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 傳統工藝作品展



1981년 1월 예산군내 뜻을 같이하는 공예작가들이 모여 『예산 공예 동인회』를 조직 하였는데 이들은 그 해 3월 창립전에 이어 해마다 문화원의 지원 아래 전시회를 개최 해오고 있는 바 지난 86년 10월 27일부터 - 31일까지 제 6회 동인전을 갖게 되었다.

이 전시회는 6일간 예산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는데 이날 전시된 작품들은 나무와 끌로서 옛 조상들의 절묘한 경지를 이루었던 목공예의 멋을 그대로 재현해낸 훌륭한 것으로써 보는이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 梅軒合唱團 定期 發表會

창단 11주년을 맞는 매현합창단이 지난 11월 28일 오후 7시 중앙극장에서 제 8회 정기발표회를 가졌다.

오옥경(명예단원) 양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는 합창 및 독창, 중창과 아울러 피아노트리오와 찬조 등으로 다채로운 프로로 진행되어 청중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문화원에서는 제 14 발표회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39명의 규수들로 구성되어 그 아름다운 음색을 자랑하는 매현합창단은 지난 11월 14일 "은 국민이 함께 부르는 노래" 라는 충남 합창 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고 12월 7일에는 홍성교도소 방문 공연을 갖는등 점차 대외적으로 예산의 명성을 드높여가고 있다.



## 禮山寫友會 作品展

1980년 11월에 창단된 예산사우회는 14명의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평소 직장과 가정에 충실하면서 주말등을 이용 틈틈히 시간을 내어 높은 사진 예술을 창조해 내기에 힘을 기우려온 결실인 제 5회 작품전을 지난 12월 13일에 개최하였다.

나흘동안 계속된 이 전시회에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찾아 들어 높은 사진예술의 경지에 감탄과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사우회에서는 사진에 취미를 갖은 20세 이상의 남녀 회원들 모집하고 있다. (문의처: 예산문화원 TEL 2-2441번, 샤라페션 (TEL. 32-5027))



## 文化院家族(씨클)한마당놀이



'86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문화원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오후 7시 1년동안 여러모로 예산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각 씨클의 임원 및 회원을 초청하여 지난해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 자그만한 다과회를 마련하고 밝아오는 새해 사업을 토론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씨클들의 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올 1년동안의 활동에 대한 토론 및 신년도 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며 연극모임 회원인 박형숙양의 사회로 즐거운 레크레이션시간을 가졌다.



## 年 賀 狀 展 示

병인년 한해가 저물어갈 즈음하여 예산문화원에서는 年賀狀 전시를 열었다.

이 전시는 새해를 맞이하여 年賀狀을 주고 받는데 年賀狀의 진의를 밝혀 보고자 했는데 군내인사, 학생들에게 자기 분수껏 성의있는 연하장을 주고받자는 인식을 주는데 성과를 보였다.

전시기간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있었고 年賀狀은 평소에 몇 인사가 모아 두었던 것이다.



圖 1. 乙: 『年賀狀의 진의를 밝히기 위하여』 전시를 열기 위하여

## “우 애 좋은 형제”

〈 등장인물 〉

아 버 지  
어 머 니  
형  
동 생

극 본 : 강 신 익

고 증 : 이 수

### 머 리 말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의좋은형제”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첫머리에 단순히 “옛날 어느 마을에 의가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라고 시작 되는데 구체적인 지명도 없고, 설명도 없으며 단지 동화에 불과한 것 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인 예산군 대흥면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구전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일화와 너무나도 내용이 흡사하다.

또 동국여지승람의 지리지에 대흥면 송지리에 李成萬과 李顯형제가 의좋은 형제 살아와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하여 비석을 세웠다는 글이 실려 있으나 입증 할 만한 사료가 없었다.

그러던중 1979년 우연한 기회에 저수지 들레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는데 그들에 새겨진 글이 있어 해석한 결과 우애비임에 틀림이 없었다. 우리 고장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실증해 주는 커다란 자료였다. 비석을 세운후 몇백년이 흐르는동안 후손들이 잘 돌보지도 못하고 관리가 소홀히되어 무한천의 한 정검다리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저수지로 되면서 저수지면 석축한 곳의 일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우애비의 발견은 우리 고장의 큰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 대흥 고장에서는 그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가 고장의 교훈이 되어,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심금을 울려주고, 형제간에 우애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생활을 실천하게 해준다.

그 우애비를 발견하여 행정기관에서 고장의 중심지인 대흥면사무소앞에 재건하여 놓은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물질문명으로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이 비석이 오래오래 존속되어 자자손손 후대에까지 이 미담이 전해졌으면 하는데 우애비 주변환경이 너무 비좁다.

현재 세워놓은 비석위에 지붕이라도 해서 비바람 풍화작용속에서도 견고하고 영구히 남아 이 고장의 영원한 문화재로 존속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막이 열리면 성만과 순파의 형제가 나뭇짐을 지고 등장  
 형 : (동생을 보며) 순아 / 요즘들어 아버님의 병환이 더욱 심해진 것 같은데 약도 제대로 못쓰고 (한숨을 토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 동 생 : (긴 한숨을 토하며) 글썩 말이에요. 정말 걱정이예요.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형님, 우리 여기서 잠시만 쉬어가요.
- 형 : (피곤한듯한 목소리로) 너도 껍이나 힘이들지?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올때, 아버님의 병환이 좀 심해지시는듯 하더구나.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마음이 급해지더구나.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며) 내가 부족한 탓으로 심해지는 아버지의 병환에 제대로 약도 쓰지 못하는구나. (동생을 보고 약간의 미소를 보이며) 그리고 너도 배도 많이 고프지? 빨리가자.
- 동 생 : (형을 보며) 형 그런소리 말아요. 그게 어디 형 탓인가요. (다시 앞을 보며) 배고픈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날이갈수록 아버님의 병환이 더해가는 걸 보면서 어떤 방도를 쓸 수 없는것이 가슴 아플 뿐이에요.
- 형 : (동생을 보며) 자 / 우리 힘 내자구나.  
 ○ 형제가 총총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하고 막이 닫힌다.  
 막이 열리면 땀을 씻으며 지계를 지고, 형제가 등장한다.
- 동 생 : (지계를 내려 놓으며) 아버님, 어머니 다녀 왔읍니다.
- 형 : (지계를 내려 놓으며) 아버님, 어머니 다녀 왔읍니다.  
 그제야 방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나온다.
- 어 머 니 : (좀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래, 이제들 오느냐. 배들 많이 고프지?  
 형 :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님 병환은 어떠신가요?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 어 머 니 : (긴 한숨을 토하며) 글썩 말이다. 빨리 너희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셔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 이때 방안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 아 버 지 : (고통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거기 밖에 돌아왔느냐?  
 형 , 동 생 : 예, 아버님.
- 아 버 지 : 돌아왔으면 들어 올게지 왜 밖에 서서 그래 어서들 들어오너라.  
 형 , 동 생 : 예, 알겠읍니다.  
 ○ 형, 동생, 어머니 모두 퇴장하며 막이 닫힌다.  
 막이 열리면 형제와 어머니가 아버지 곁에 둘러 앉아 있다.
- 아 버 지 : (두 아들들의 손을 잡으며) 고생이 무척 심하지? 미안 하구나.

너희를 어려서 부터 좋은옷, 좋은밥 못먹이고 키워 온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젠 병까지 얻어 너희를 또 고생을 시키는구나.

(고개를 백쪽으로 돌리며)에이그/죽을 사람은 빨리 죽어야 할텐데...

동 생 : (아버지 손을 잡으며) 아버지, 돌아가시다니요. 저희들을 두고 어딜 가실수 있단 말이에요. 얼른 기운을 차리실 생각을 하셔야죠.

형 : (고개를 떨구면서, 울음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정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제가 못한 탓으로 .....

어머니 : (눈물을 닦으며) 그런말 말거라. 그게 어디 너희가 못한 탓이냐. 다 하늘의 뜻인게지.

아버지 : (두 아들을 보며) 사내 녀석들이 울긴 왜울어 자, 그만들 눈물 닦고 배가 고프테니 밥들 먹거라. (부인을 보며) 여보/ 얼른 애들 밥좀 차려 주구려.

어머니 : (두 아들들의 등을 토닥거리며) 그러, 그러, 어서들 밥먹어 야지.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 얼른 차려 올테니 (밖으로 퇴장)  
○ 막이 내린다. 다시 열리면 어두운 저녁 문밖에 형이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때 방안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와 어머니의 걱정하는 소리가 나즈막히 흘러 나온다.

어머니 : 더 아프신가요. (긴 한숨) 당신같은 병에는 다른 어떤 보약보다도 그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한대요. 신령님도 그렇게도 간절히 빌었건만.

아버지 : 그만 두구려. 나야 이미 죽을 목숨이니 생각하지 말아요. 이렇게 허구헌날 누워만 있으니, 당신과 두 녀석들에게 미안할 뿐이랴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면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와 두 녀석들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신령님께서 벌써 보살피 주셨을 게요.

어머니의 울음 소리가 조그맣게 들린다. 그때 밖에서 듣고 있던 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

형 : (벌떡 일어서며) 그래 바로 그거야. 아버지께 고기를, 그것도 아주 귀한 고기를 드리는 거야. 그럼 아마도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늘을 보며)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 형이 총총히 퇴장하며 막이 닫힌다.

다시 막이 열리면 어두운 저녁, 형이 칼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

형 : (하늘을 보며) 하느님, 저희 아버지만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토록 가난하여 병중에 계신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 한번 대접하지 못하였으니, 이 불효를 어찌 하오리까. 저는 결심 하였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예잇 / (칼을 들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면서 고통스런 표정으로 쓰러지며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내던진다.)

○ 이때 동생이 등장하며 형을 부르면서 놀란다.

형 : (동생의 입을 막으며) 쉬잇 / 조용히 하거라. 밤에는 조그만 소리까지 잘들리는 법이란다. (다시 고통스러운 듯) 으옥 /

동 생 : (형의 다리를 보며) 형님 /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왜, 일부러 다리의 살을 -

형 : (떼어낸 살을 동생에게 주며) 순아 / 이걸 종이에 싸서 부엌에 갖다두고, 방에가서 형걸을 가지고 오너라. 자 - 빨리. (상처가 몹시 아픈 듯 고통스러운 표정)

동 생 : (형을 붙잡고 울며) 형, 그렇다면 아버님께 드릴려고 .....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운다.)

형 : (다리를 절뚝거리며 몇걸을 나가 하늘을 보고) 순아 / 하늘님이 나에게 이런 용기를 주셨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서 저리 아프신데 약이 된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니? 그래도 난 아직 부모님의 은혜에 천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였구나. (다시 동생을 보며) 자 / 울지 말고 어서가서 형걸을 가져다 다오. 이 떼어낸 부분은 금방 아물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동 생 : (형을 얼싸안으며 운다.) 예, 형님 (막이 닫힌다.)  
○ 막이 열리면, 밝은 아침. 부엌에서 종이에 싸것을 어머니가 들고 나오며 큰소리로 아들들을 부른다. 그때 동생이 등장한다.

동 생 : (뛰어나오며) 어머님 부르셨어요?

어 머 니 : (종이에 싸것을 들어 보이며) 그래, 아, 글썄 내가 부엌에 밥 지으러 들어 갔더니 웬 고기가 있질 않겠느냐?  
너도 모르는 일이나?

동 생 : (모르는 것처럼) 글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 그때 형이 절뚝거리며 창백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어 머 니 : (놀라며) 아니, 너 어디 다쳤느냐? 왜 그러느냐?

형 : (멋쩍게 웃으며) 아니예요. 어머님, 옛저녁에, 어두운 밤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넘어져 큰 바위에 부딪쳤을 뿐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왜 그러세요.

- 어머니: (혀를 차며) 에이그! 조심하지 않구서는. (종이에 쓴것을내 보이며) 글세 말이다. 부엌에 웬고기가 있질 않겠느냐. 그래서 하도 놀라와서 너희들 혹 아는가 해서 말이다.
- 형: (좋아하며) 아니, 어머니님. 하느님이 우릴 도우셨나 봐요. 우리 형편과 아버지 병환을 아시고 보내 주셨나 봐요. 어머니, 오늘 아침은 그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리세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네, 어머니님.
- 동생: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는 표정으로) 그래요, 어머니님. 맛있게 해드리세요.
- 어머니: (하늘을 보며 눈물쉬인 목소리로) 어이구! 하느님도 무심하진 않으시구면요. 감사 합니다요. (눈물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내 얼른 요리 하마.
- 동생: (형을 보며) 형! (고개를 떨군다.)
- 형: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순야! 우리 절대 표를 내지 않는거다. 알겠지?  
○ 그때 방 안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형과 동생이 뛰어들어 간다. 막이 닫힌다. 다시 막이 열리면 방 안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부축하고, 어머니가 고기점을 떼어 넣어 드리고있다.
- 아버지: (힘에 겨운듯) 아니, 이게 웬 고기여? 우리 형편에 말여.
- 어머니: (예치로우나 기쁜듯) 어이구! 얼른 드시고 기운 차리시라고 하늘이 보내준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 말씀 마시고 얼른 들기나 하세요. (다시 입에 넣어 준다.)
- 아버지: (고기를 씹으며) 참! 정말 그 고기 맛이 특이하네. 아주 맛이 좋구먼. 자! 입자도. 너희들도 먹거라. 응.
- 형: 아니예요. 아버지님. 저희들은 밖에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 어서 많이 드시고 쾌차 하셔야죠.
- 동생: 그래요. 아버지님. 얼른 드십시오.  
○ 막이 닫혔다. 다시 열리면 방안에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다.
- 아버지: (고개를 가우송거리며) 거참! 이상한 일이어. 그 고기 몇 점 맞인지 내 몸이 이렇게 가련할 수가 있을까? 지금은 들에 나가 일이라도 할 수 있을것 같으니 말여.
- 어머니: (기분이 좋은듯) 영감, 그럼 오랜만에 들에도 좀 나가보고 우리집 안팎도 좀 둘러 보구려. 기분이 한층 밝아질 터이니 말이에요.
- 아버지: (일어나려다 도로 누우며) 아니여, 이렇게 정신이 맑아졌을

때 해야 할말이 있어. 모두들 잘 들어. 나는 이미 병들어 죽은거나 다름없는 몸. 지금 이렇게 잠시 기운이 멀쩡한 것 두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두 아들을 보며) 애들아 / 정말 미안 하구나. 그러나 이렇게 너희 애비가 쉽게 간다고 해서 너희들도 아무렇게나 살아선 안된다. 너희들은 어려서 자랄때부터 께이나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었지.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 잘 모시고 얼마 안되지만 우리논에 곡식을 같이 심고 같이 거두어 다복하고 우애를 지키며 살아야 되느니라.

형, 동생 : (아버지 곁에 다가 앉으며)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고개를 숙인다.)

○그때, 아버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운명한다. 너무 놀란 식구들은 멍할뿐 울음 소리도 없다. 잠시후 어머니가 “영감”을 부르며 엎드려 울고 두 아들도 울기시작한다. 막이 닫힌다.

◎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깊은 두 형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얼마 안되어 어머니 마저 병환으로 여의게 되었다.

형과 아우는 아버지, 어머니 묘옆에 움막을 각각 짓고 3년상을 지극한 마음으로 치루었다. 그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얼마후 형이 아주 착하고 예쁜 색시를 만나 결혼하여 두 남매를 두게 되었고, 동생도 그후 결혼하여 신집살림을 차리며 아버지의 유언대로 얼마 안되는 논이지만, 우애롭게 같이 곡식을 심고 거두고 하면서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가을 - 형과 동생이 봄에 심은 벼가 누렇게 익은 들녘에 낮을 들고 들판을 바라보며 웃고 서 있다.

동생 : 형님, 올해는 풍년이어요. (이삭을 가리키며) 이 이삭들을 좀 보श्य요.

형 : (이삭을 보며) 참 목직하구나. (동생을 보고) 자, 어서 베어 이야기.

동생 : (형을 보며) 형님, 형님은 동쪽에서 베어 오श्य요. 저는 서쪽에서 베어 가श्य어요.

형 : (웃으며) 그래라, 누가 많이 베나 내기를 할까?

동생 : (역시 웃으며) 좋श्य요, 형님.

= 한 바탕 웃음소리 =

- 열심히 벼를 베어 나가는 모습이 계속 보이면서 막이 닫힌다. 다시 막이 열리면, 벼짚단이 논바닥에 누워져 있고 형제들이 서 있다.
- 동 형 : (동생을 보며) 자, 누가 막이 베었나 쌓아보자.
- 동 생 : 예, 형님. (하늘을 보며) 형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늘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보시고 흐뭇해 하시겠죠?
- 동 형 : (하늘을 보며 만족한듯)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수 있는 것도 모두 부모님의 은덕이지. 비록 지금 계시진 않지만 우선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지 않겠니? (웃으며) 자, 어서 쌓아 보자
- 동생과 형이 열심히 쌓고 있다. 다 쌓고난 형과 동생이 쌓은 날가리 앞에 서 있다.
- 동 형 : (기쁜 목소리로) 똑같구나.
- 동 생 : (역시 기쁜듯) 정말 똑같네요.
- 동 형 : 그럼 한 더미씩 나누기로 하자. 네가 베어 쌓은 날가리는 네가 가져라.
- 동 생 : 예, 형님.
- 무대가 점점 어두워지며 형제가 의좋게 마을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막이 닫힌다. 다시 막이 열리면 동생이 무대 한 가운데 서서 등그렇게 떠오른 달님을 보고 있다.
- 동 생 : 오늘 형님하고 똑같이 벼를 나눈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야.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지셔야 해. 나중에라도 형님에게 벼를 보내 드려야지. (잠시후, 무슨 생각을 한듯 고개를 저으며) 안돼, 형님은 받지 않으실 거야. 무슨 좋은수가 없을까? (뒤통을 전체로 무대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각)
- 동 생 : (손뼉을 치며) 읊지, 형님 물레 벼단을 읊겨 놓아야 겠다.
- 이때 두 날가리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동생은 자기의 벼단을 돌아다 형님 날가리에 쌓고 있다. 잠시후 -
- 동 생 : (손을 털며) 이만하면 되겠지?
- 동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퇴장. 퇴장하는 그의 모습에 달님이 환히 비추고 있다. 잠시후 달님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채 형이 등장.



형 : (뒤틀짐을 지고 두넉가리를 보며) 그래, 동생과 벼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야.

동생은 새로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살림에 드는것이 나보다 더 많을거야. 그러니 동생에게 더 나누어 주기로 하자.

○ 퇴장하려고 몇발짝 가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시 돌아선다.

형 : 그렇지만, 동생은 받지 않을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잠시 생각). 읊지, 동생물래 벼단을 읊겨 놓자.

○ 형은 조심 스러이 벼단을 읊기고 있다. 얼마후 -

형 : (이마의 땀을 닦으며) 어두워서 잘 알수는 없지만, 이만하면 되겠지.

○ 형이 총총히 퇴장하며 막이 닫힌다.

막이 열리면 아침. 동생이 삼을 들고 등장. 논외의 날가리를 보고 놀란다.

동 생 : (놀란 음성으로) 아니, 이럴리가 없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부지런히 벼단을 읊겼는데, 왜 하나도 줄지를 알았을까? (고개를 가우뚱) 이상하다. 어떻게든 오늘밤에 다시 읊겨 놓아야겠다.

○ 동생, 자꾸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천천히 퇴장.

잠시후, 형이 등장. 형도 날가리를 보며 놀란다.

형 : (놀란 음성으로) 아니. 어떻게 된걸까? 엿저녁 분명히 벼단을 읊겨 놓았는데, 두 날가리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네.

(가우뚱거리며) 거참, 이상하다. 아무튼 오늘밤에 다시 읊겨 놓아야겠다.

○ 형이 퇴장하며 막이 닫힌다.

막이 열리면 다시 캄캄한 밤. 동생이 조심스럽게 등장.

동 생 : 참, 이상한 일이야. 엿저녁 분명히 벼단을 읊겼는데, 아침에 보니까 똑같다니. (독백을 하며, 자신의 날가리에서 벼단을 메고 동생 날가리 쪽으로 향한다.)

○ 그때 형이 벼단을 메고 동생 날가리 쪽으로 걸어온다.

동 생 : (우뚱 서며) 거, 누구요?

형 (놀란듯) 응?

○ 이때, 어둠된 검은 구름이 걷히고 환한 달이 형제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동 생 : (벼단을 내려 놓으며) 아니, 형님 아니세요?

- 형 : 아, 너였구나!  
 ○ 형제가 빗단을 내던지며 서로 달려들어 일싸 안는다.
- 형 : (일싸 안은채) 순아! 우리 내일은, 일찍 아버지, 어머니 묘  
 에 다녀 오자꾸나. (울음 섞인 소리로) 우리의 우애를 이렇  
 게 지켜 주시니, 가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려야지.
- 동생 (울음 섞인 목소리로) 예, 형님.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따라  
 무척이나 밍고 싶군요.  
 ○ 달빛이 환하게 형제에게 비추이며 막이 닫힌다.



## 編輯後記

- 丁卯 새해 歲拜 드린다.  
올해는 南과北이 對話로써 金剛山뎀 平和의 夢을 없애자  
고 合掌
- 秋史記念館 建立을 爲해 數三의 해를 거둬하다.....  
誕辰 200 周年을 맞는데 丙寅해 만은 하고 棼風沐雨 했지만  
設計圖만이 나왔을뿐.....
- 이에 策定하는데 도와주신 文藝振興院 關係任員님에게 感  
謝드리며 지난 丙寅에 起工 못했음을 謝過드립니다.
- 그리고 老齡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亦是 도와주신 李  
丙濂先生님 鄭漢模先生님 姜周鎭先生님에게도 感謝드리고  
또한 謝過드립니다.
- 일에는 欺君罔上에 업하지 말고 覆得해서 漏漏해야만 盜風  
을 맞는다는 哲理가 아쉬워.....
- 吠形吠聲으로 瘴雨蠻烟이 닥친다해도 雖千萬人吾往일 따름  
..... 拓之狗吠堯之境에서 벗어 나겠다.
- 郷土史에서 뿐아니라 民族自主銀行史를 지니고 있는 湖西  
銀行 本店建物이 忠淸銀行 支店 新築에 열인다고.....  
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번 號에 特輯으로 엮어 照明하느  
라 했으나 未備點이 아직 많다.
- 다만 史蹟建物 歷史를 지닌 것들을 保存되기만 合掌

季 刊

禮山文化院報

1987年1月1日發行  
1月號(通券0引)

發行人兼  
編輯人 李 恒 毅

發行處  
忠南禮山郡禮山邑禮山里  
禮山文化院  
電話 2-2441

印刷處光明印刷社  
(禮山) 2-4102

非 賣 品

관 광 버 스 전 세  
국 내 여 행 알 선  
수 학 여 행 알 선  
산 업 시 활 안 내  
신 흥 도 관 광 안 내

한 양 관 광 (주)

예산읍 예산리

전화. 2~7661, 7662

